

주일에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2월 8일 (제1283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성경 한 권의 사람

어느 한 신학생이 내게 묻는다.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많은 책 중에서 저희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 한 권의 사람을 말한다. 성경 한 권이면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많은 자들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진리는 오직 하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진리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면 넘지 못할 벽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성경 한 권 덕분이었다.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성경을 건네며,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라고 유언했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성경은 인생의 이정표, 영생의 이정표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 행복, 영생에 이른다. 또한 성경은 거울이다. 많은 믿음의 선전들의 성공 및 실패담을 통해 깨우치니 그대로 살면 성공에 이른다.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해답지다. 그 안에는 인간사에 대한 모든 정답과 해법이 들어있다.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부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돼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4:4).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종이 다녀간 자국이 남게 하소서!”
목사님이 해외집회를 마치고 그 지역을 떠나실 때 꼭 하시는 기도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고(막 11:24),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 기도한 것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멕시코(Mexico) 방문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는 지난 2001년부터 이번 방문까지 멕시코를 총 44회 방문하였고, 총 52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그리고 지난 과달루페(Guadalupe) 집회를 배설했던 로헬리오(Rogelio) 목사, 사비나스(Sabinas)의 로헬리오 목사, 한국을 다녀갔던 피델(Fidel) 목사 등이 마리아치(Mariachi, 멕시코 민속음악단)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10년,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그들은 이제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지만, 함께한 추억,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기쁨은 더욱 배가되었다.
시내로 들어가 숙소 옆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한 젊은 목사가 목사님 옆에 앉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다. 캐주얼 차림의

고, 목사님과 일행 모두를 대접할 만큼 돈도 있다며 애찬(愛餐)을 베풀었다.
그날 저녁 엠마누엘 목사 교회를 방문하였다. 말보다 그의 교회를 직접 방문해보니 더욱 놀라운 뿐이었다. 목사님은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16년 전에 나를 만나 꿈을 키운 젊은이가 이렇게 큰 목사로 성장했으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뿐이다. 이는 마치 클린턴이 학창 시절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한 이후 꿈을 키워 대통령이 된 사건, 오바마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이어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과 같다. 이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떠한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EI Cielo Church, 엠마누엘 목사 담임)

다녔지만, 멕시코처럼 많이 방문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목사님은 멕시코가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시고, 멕시코도 목사님께 명예시민권을 부여했다. 가는 곳마다 도지사, 시장, 사업가 등 권력과 재력 있는 자들이 도왔고, 이번 방문에는 경찰 차량이 장갑차를 포함 총 6대가 움직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기쁘게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보지 못했던 멕시코의 종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큰 기쁨과 보람은 그들이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몬테레이(Monterrey) 공항에는 김성자 전도사, 라구나(Laguna) 목사와 이현숙 선교사는 물론 엑토르(Héctor) 선교사,

젊은이가 공항부터 식당까지 따라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웠다.
엠마누엘(Emmanuel Carranco, 41세) 목사, 그는 16년 전 과달루페 집회 때 로헬리오 목사 교회의 전도사로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목사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과 오늘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간증을 이어갔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라구나 목사가 대신 돈을 내주었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단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는 교회를 개척하여 중견교회로 부흥 성장시켰

씨를 심느냐가 중요하다. 엠마누엘 목사가 나를 만나 나도 이초석 목사처럼 능력 있는 종이 돼야겠다는 생각의 씨를 심고 꿈을 키웠더니 오늘의 엠마누엘 목사가 된 것 아닌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씨를 심었는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예배 후에 마르힐(Margil) 목사, 오스칼(Oscar) 목사 등이 찾아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모두 한국 세미나에 다녀간 종들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과 만남, 그리고 한국의 세미나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그동안 이 멕시코 땅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실에 한편 놀라고 감격하는 모습이셨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16년 전 사진을 보여주며 간증하는 엠마누엘 목사



몬테레이 공항에서 영접하는 멕시코 목회자들



집회 내내 목사님을 경호해준 과달루페 경찰경호부대원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애3:33)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예수가 야수에게 미쳐 장손의 의무인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예수를 위한 다며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 쓰는 아들을 더는 못 보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서 차 트렁크에 옷 몇 벌만 싣고 집을 나온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머니가 보고 싶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 집에 들르면 우리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제 옷을 갈기갈기 찢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 사랑임을. 옷을 찢으신 것이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는 이 아들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으셨던 어머니가 보기에는 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어머니가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어머니의 본심을 알게 된 후로, 물론 여전히 저에게 가혹한 어머니셨지만 이해할 수 있었고, 더욱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한 번쯤 헤아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렘29:11).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성경 여기저기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이 말씀은 하나님 본심의 으뜸입니다.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또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고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8:32).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까지 주신 것이고(눅11:13), 이스마엘로 족하다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고, 기근을 피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났던 수벴 여인이 돌아와 자신의 땅을 되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왕을 통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받게 하셨던 것입니다(왕하8:6).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욕심 사납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더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먼지 한 톨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구하세요. 어린 자녀들이 어디 부모 사정 봐가면서 조롭디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달라고 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

(빌 4:19).

하나님의 사

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정말로 한이 없

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고(렘1:4~7), 또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창1:27). 그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며(요14:14),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까지 멋지게 짓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힘드냐고요? 왜 가난하냐고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애3:33).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으시나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이해하고,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당신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중

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막3:14)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전도의 일보다 먼저 당신과 함께 있을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뿐 아니라 영생의 것까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니 쥐엄열매나 먹는 신세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계속 아버지 안에 있었기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눅15:31), 곧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 시편 91편의 복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거저 받습니다.

그런데 좀 췌다 하면, 좀 컸다 하면 그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병아리가 조금 자라면 어미 암탉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답답하나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23:37). 사울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렇게 믿었던 솔로몬도, 솔람미 여

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아시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나가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개고생하는 줄 아니까 못 가게 하려고 고민 고민하시다가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몰랐기에 예수에 미친 제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서 그토록 매정하고 가혹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12:5~8).

이때 얼른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얼른 하나님 품으로 속 들어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일은 작전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어갈 때 명의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승리를 안기셨고, 다윗을 늦도록 부귀케 하셨으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길랑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본심을 오해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세요. 그 품에 바짝 안기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문 열어 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품에 가면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호6:1~2).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심판은 두려운 실상이다

우리 육신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헤어졌다가 다음날 부고를 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죽은 후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오며,예수를 믿는 자는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다. 심판을 믿지 않기에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한다. 우리는 최후에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자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일평생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고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분량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원금에 변리가 붙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남을 면치 못했다(마25:30). 이는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뜻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만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일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보다 더 철저히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다. 오늘날,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나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일이 성공할 무렵에 가서는 바쁘다고 등을 돌린다. 시작은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서 일이 잘되니까 바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는 자기 임의대로 살 때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쓰는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믿음을 보고, 우리 몸으로 헌신하면서 신령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수고를 인정하시고 보상해주신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생명의 면류관을 악한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계3:11).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전15:58).

신기류 목사

:: To Be Succeeded ::

No cross, No crown

어릴 적 외갓집에 가면 엄마는 매번 복음을 전하셨다. 돌아오는 것은 고향과 껍박 뿐이었지만. 양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엄마의 기도는, 그래서 늘 눈물과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친척들이 엄마에게 사례를 표하는데 이유는 하나다. 덕분에,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 받고 산다고 말이다. 우리 형제자매가 입을 모아 엄마께 감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80이 넘는 지금까지 기도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껍박하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손들이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는 것이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해온 엄마에게는 기쁨이고 위로이며,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반전이고 은혜이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네 인생을 대변하는 듯하다.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또 라반 집에서 별 보고 들에 나가고, 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 고단한 여정 가운데, 그는 자기가 거부가 되어 돌아갈 것을 알았을까? 아내들의 시기와 분쟁으로 마음 고생하며 열두 아들을 낳을 때도 그들이 열두 지파

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몰랐을 것이고, 요셉을 잃었다고 여기고 비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역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것과 그것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을 몰랐을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생, 실패로 점철된 인생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일생을 살았고, 또한 마무리하여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당당히 올랐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등등 성경의 믿음의 선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수많은 껍박과 환난의 비바람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가치를 드리워 세계 곳곳에 열매를 맺어오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기도의 뿌리를 힘써 내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바뀌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소망을 발판 삼아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고 이겨낸다면, 우리 모두 반전의 인생과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국진 사모

:: 책을 펴다 ::

망각

누군가 세월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세월보다 아픔을 달래기에 좋은 위로제는 없고, 세월보다 고통을 치료하기 좋은 비법은 없습니다. 때론 잊는 것도 복입니다. 기억이 열려지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삶은 다 가슴에 담고 있다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도 아마 돌아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아픔이 누적되고 고통이 겹겹이 되어 그것에 눌러 신음하다 죽을 것입니다. 망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 것은 지난 세월에 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화를 품어서 될 일이 아니라면 잊는 게 좋습니다. 평생 눈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잊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가슴에 담는 용량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사실 하나님도 망각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잊으시니 말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아프고 힘들고 화나고 어려웠던 순간을 접고, 그 속에 아름다웠던 순간을 넣어 세월 속에 미소 짓게 합시다. 잊히는 것은 잃어버린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란 어디에 그것을 두었는지 모르는 것이나 잊은 것은 세월에 흘러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부도난 수표일진대 아픈 기억을 붙잡고 어떻게 밝은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기도 벅찬 세월입니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새해를 다시 씌웁시다. 2025년, 전대미문의 기적이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웅달샘** 중에서

12월 산상집회

날짜: 12월 9일(월) ~ 1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 생명의 말씀 ::

선악과 없는 종교

인간은 입으로 들어가는 육의 양식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동시에 먹고 사는 존재이다. 자동차를 보면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넣을 곳이 각각 따로 있다. 휘발유 넣을 곳에는 휘발유를 넣어주고, 엔진오일을 넣을 곳에는 엔진오일을 넣어주어야만 자동차는 제대로 움직이게 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떡을,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마4:4). 이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다.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하고 있다. 선악과 없는 종교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매우 환상적이며 인기 있는 종교다. “신이 시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오! 그러

나 내 요구는 다 응답하소서!” 선악과 없는 종교의 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인간의 저의는 간단하다. 그 우상들은 하라 말라 하지 않으니까 편하다. 인간이 아쉬우면 가서 복을 요구하고, 위로를 받는다. ‘선악과’가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 대신 필요를 따라 신을 창조했다. 그들이 창조한 신들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선악과 없는 종교가 세상에만 있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께 복은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타락이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곧 자기 의지를 자기 임의대로 쓰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인간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주신 엄청난 축복을 인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임을 알리는 안전장치다. **임택함** 목사

:: 동행하는 삶 ::

:: 참된 깨달음 ::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

얼마 전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허리 신경이 눌린 것 같다 하여 주사 치료를 권유받아 대기하고 있는데 긴장되고 떨렸다. 그런 긴장되는 순간이 오면 나는 자동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군 천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울지어다!”라고 말한다. 침대에 누워 바늘이 허리를 찌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약이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약이 들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지어다!’라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외친다. 총회장 목사님께 배운 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다. 일단 어딘가 아프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지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고 노력한다. 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언니가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불안과 긴장과 걱정이 많다. 그 언니에게 시시때때로 “언니! 교회 다녀 봐요, 예수님 믿어봐요. 그러면 단잠을 자게 될 거예요.”라고 말한다.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 누워있으

면 아이들이 다가와 “엄마, 기도해드릴까요?” 하고는 내 몸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해준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에 힘이 나기 시작한다.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들과 고민, 긴장이 연속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권세이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온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일어서게 되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3:6)라고 베드로가 명하자 앓은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 앓은뱅이는 몇 푼의 돈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일으켜 세웠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는 걷는 연습이나 재할훈련도 없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자 힘이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며 능력을 준다. 우리가 힘들 때 단순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다. 구원의 이름이자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병과 가난과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를 알고 믿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감사한 선물이다.

2024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자!’는 표어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2024년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요14:13~14).

정효경 집사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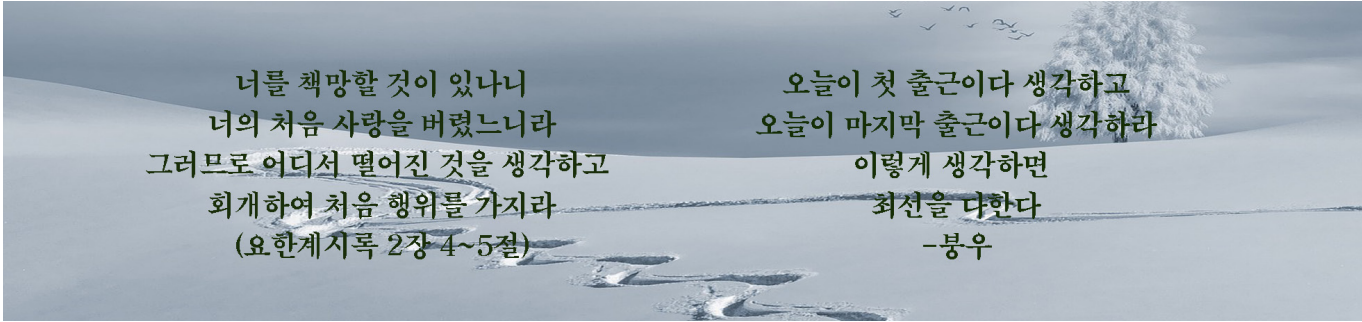
우리 가정에 소중한 셋째 자녀를 주셨을 때,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 다. 다섯 식구가 지낼 좁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마음을 먹고, 만삭의 아내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전학하지 않도록 같은 동네를 알아봤지만, 살던 집을 팔아도 1억 원은 더 있어야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 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을 받은 터라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월급이 갑자기 오를 일도 없었기에 실망만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하계산상집회(2017)에 참석했는데, 첫째 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였 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이사 갈 수 있 다는 소망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 다.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뉴스에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폭 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 동산에 집을 내놓자마자 비싼 가격에 바로 팔렸습니다. 이제 이사 갈 30평대 집 을 찾아야 하는데, 최소 6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앞 동 로열층에 시세에 비해 4천만 원이나 싼 매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장 집을 보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이런저런 핑 계로 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계약하라는 감동이 와서 집을 보 지도 않고 집주인에게 그날로 가계약금 을 넣었습니다. 가계약은 했지만, 집값 은 계속 오르고 있었기에 집주인이 마음 을 바꾸지 않도록 7일간 여리고를 돌기 로 했습니다. 새벽에는 만삭의 아내가, 낮에는 어머니가, 저녁에는 퇴근한 제 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이 집은 내 것이 될지어다!”를 외치며 아파트를 돌았습 니다. 잔금을 치르던 날 오전에는 살던 집을 매도하고, 오후에는 무사히 꿈꾸 던 30평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같 은 단지 9층 20평대를 팔아서 22층 30 평대로 이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 니다.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 결 심을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것 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송명국 집사



:: 주님을 향한 노래 ::

본이 됩시다

많은 교육법 중에도 효과가 좋은 방법은 시범(示範)입니다. 교육할 내용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오감을 통해서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 좋은 교육이 됩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집안의 낮은 하인이 할 일인데, 가장 높으신 스승이 그 일을 했으니 제자들의 충격이 적잖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4).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교육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아들과 같이 탈 때는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에게 “안녕하세요, 해야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뻔히 쳐다만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나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인사를 시키는 게 조금씩 멋쩍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아이를 데리고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는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아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에 아무도 없어도 말입니다. 이제는 길을 가다가도 처음 보는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시대 목사님은 설교학 시간에, ‘설교는 강단에서 50%, 삶에서 50%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더욱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가실 적에는 먼저 어머니를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나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도 내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듯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나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된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살전1:7). 우리도 내가 속한 곳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산다면, 목사님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2:12).

이호민 전도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